

양현종,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꿈같은 데뷔



2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 대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의 경기 3회에서 텍사스의 양현종(33)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LA 에인절스 상대 4.1이닝 2실점
투구 수 66개 중 44개 스트라이크
구원 등판 초반 7타자 연속 범타 행진
텍사스, 4-9 패배 속 빛나는 호투**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4.1이닝 2실점으로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MLB) 데뷔전을 치렀다. 양현종은 27일 열린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서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를 상대로 빅리그 데뷔 등판을 했다. 4-7로 밀린 3회초 2사 2, 3루라는 어려운 상황에 긴급 투입됐지만, 양현종은 4.1이닝 동안 볼넷 없이 안타 5개(홈런 1개)를 내주고 삼진 1개를 잡아내며 2실점으로 막았다. 투구 수는 66개였는데 44개가 스트라이크였다. 작구 최고 구속은 시속 90.8마일(약 146km)을 기록했다. 양현종은 선발투수 조던 라일스가 2.2이닝 만에 10피안타 7실점으로 조기 강판당한 상황에서 생애 처음으로 빅리그 마운드에 올랐다. 양현종은 메이저리그 팀 타율 2위를 자랑하는 에인절스 타선에 맞서 7타자 연속 범타 행진을 벌이는 등 초반 호투했다. 텍사스는 4-9로 패했지만, 데뷔전에서 노련함을 보인 양현종이 경기 중반을 잘 버텨준 덕분에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역사적인 메이저리그 첫 상대는 사타구니 부상에서 이날 복귀한 에인절스의 4번 타자 앤서니 랜던이었다.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로 각각 파울, 헛스윙을 유도한 양현종은 5구째에 2루수 뜬공을 잡았다. 시속 90.6마일(약 146km)짜리 작구로 메이저리그 첫

아웃카운트를 잡은 양현종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4회초에 다시 등판한 양현종은 삼자범퇴로 깔끔한 투구를 이어갔다. 제러드 윌시는 직접 직선타로 처리했다. 양현종은 앞선 타석에서 연속 타자 홈런을 때린 저스틴 업턴과 엘버트 푸홀스도 간단히 처리했다. 업턴을 유격수 땅볼로 돌려세운 뒤 양현종은 잠시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공부하더니 푸홀스를 중견수 뜬공으로 잡았다. 5회초도 삼자범퇴였다. 선두타자 호세 이글레시아스, 커트 스즈키, 데이비드 플레처를 각각 1루수 땅볼, 3루수 땅볼,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했다. 6회초에는 오타니 쇼헤이가 선두타자로 나오면서 한일 빅리그 자존심 대결이 펼쳐졌다. 에인절스에서 투타 겸업하는 오타니는 이날 선발투수 겸 2번 지명타자로 출전했다. 오타니는 초구에 기습 번트를 시도해 양현종의 허를 찔렀다. 당황한 양현종은 3루쪽으로 튕 공을 쫓았지만 오타니에게 메이저리그 첫 안타를 허용했다. 이어 현역 최고의 타자로 꼽히는 마이클 트라우트가 타석에 들어와 2루수 내야안타를 치고 나갔다. 이로써 양현종은 에인절스 타자 9명을 모두 상대했다. 무사 1-2구에 몰린 양현종은 랜던을 좌익수 뜬공 처리했지만, 윌시에게 중월 적시 2루타를 맞았다. 오타니가 홈에 들어오면서 양현종은 빅리그 첫 실점을 했다. 양현종은 흔들리지 않고 체인지업으로 업턴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푸홀스를 유격수 땅볼로 잡아 이닝을 마무리했다. 7회초에도 등판한 양현종은 첫 타자 이글레시아스에게 빅리그 첫 피홈런을 남겼다. 시속 79.7마일(약 128km) 슬라이더가 좌중간 담장 뒤로 날아갔다. 스즈키에도 중전 안타를 맞은 양현종은 이후 플레처, 스콧 셰블러, 트라우트를 범타로 물리치고 이닝을 끝냈다. /연합뉴스

KIA 윌리엄스 감독 “양현종이 그림다. 자랑스럽다”

빅리그 데뷔 축하 ... “성공 모습 보고싶어”

“그림다. 우리랑 있으면 좋겠다”며 윌리엄스 감독이 웃음을 터트렸다. 윌리엄스 감독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자 그리움이 더해진 소식, 양현종의 ‘빅리그 데뷔’였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은 27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홈경기를 통해 꿈에 그리던 빅리그 무대를 밟았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날 경기 전 가진 취재진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아직 양현종의 경기 영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양현종 선수에게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양현종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없냐”는 질문의 답변에는 인터뷰실이 웃음바다가 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그림다. 우리랑 있으면 좋겠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선발진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윌리엄스 감독의 솔직한 속내였다. 이어 윌리엄스 감독은 “그렇지만 동시에 자랑스럽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며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성공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빅리그 도전에 응원을 보냈다.

한편 양현종은 2016년 2월 24일 이후 5년 만에 무대를 바퀴 오타니와 눈길 끄는 대결을 가졌다. 당시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렀던 KIA는 오타니가 버티고 있는 니혼햄과 연습경기를 한 적이 있다. 이 연습경기 선발로 KIA와 니혼햄의 ‘에이스’ 양현종과 오타니가 나란히 출격해 화제가 됐다. 양현종은 당시 2이닝을 소화하면서 컨디션 점검을 했었다. 기록은 3피안타 1실점(비자책). 오타니는 3이닝을 던져 1피안타 2볼넷 5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김호영이 오타니의 148km 작구를 강타해 2루타를 터트리면서 또 다른 화제의 인물이 됐다. 피안타를 기록한 뒤 오타니는 1회 바로 스피드를 160km 끌어올리는 괴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빅리그에서 전개된 첫 맞대결에서는 오타니가 웃었다. 선발 투수 겸 2번 타자로 나온 오타니는 6회초 기습 번트 안타로 양현종에게 메이저리그 첫 피안타를 안겨줬다. 또 마운드에서는 5이닝 3피안타(1피홈런) 2볼넷 9탈삼진 4실점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팀이 9-4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승리투수까지 됐다. 2018년 5월 21일 탬파베이 레이스전 이후 1072일 만의 승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미드필더 김현욱 3라운드 연속 ‘베스트 11’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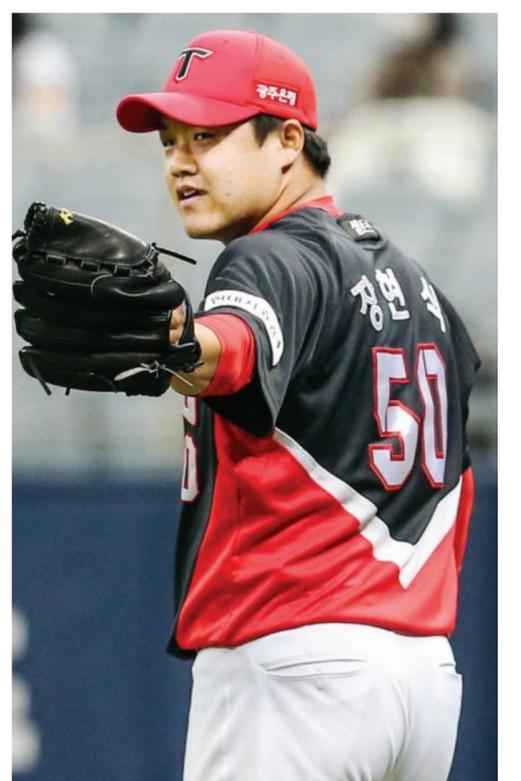
전남드래곤즈의 미드필더 김현욱이 3라운드 연속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7일 K리그2 2021 8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전남 김현욱이 다시 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3라운드 연속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1라운드까지 포함하면 벌써 4번째 선정이다. 김현욱은 특히 6라운드 김천상무와의 경기에서 멀티골로 팀의 2-1 승리를 이끌며 ‘MVP’에도 등극했다. 김현욱과 함께 전남의 ‘새 외국인 선수’ 발로텔리와 ‘수문장’ 박준혁도 8라운드 베스트 11에 포함됐다. 발로텔리는 지난 24일 부산아이파크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43분 알렉스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골대를 갈랐다. 올 시즌 첫 골이자 친정팀을 상대로 K리그 복귀골을 터트린 발로텔리는 1-0으로 경기가 끝나면서 결승골 주인공까지 됐다. 박준혁은 좋은 수비로 무실점 경기를 펼치며 팀의 3연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광주FC를 상대로 3경기 연속 골에 성공한 대구 에드가는 K리그1 2021 12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14차례 슈팅을 선보이고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한 광주는 후반 29분 수비 실수 속, 에드가에 골을 내주면서 0-1패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뒷심 싸움’ 장현식 손에 달렸다

**12경기 13.1이닝 소화 ‘불펜의 마당쇠’
“쓸데 없는 공 줄이고 깔끔하게 이닝 처리”**

KIA 타이거즈의 장현식이 필승조로 ‘뒷심 싸움’의 열쇠를 쥐었다. KIA의 4월은 ‘마운드’가 화두였다. 윌리엄스 감독의 선발 퍼즐 맞추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타선의 폭발력이 떨어지면서 불펜진의 부담이 컸다. 사실 불펜도 시즌 전 KIA의 약점으로 꼽히는 지점이기도 했다. 마무리 전상현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지난 시즌 들직한 활약을 해줬던 박준표가 제 몫을 해주지 못하면서 어려운 싸움이 이어졌다. ‘집단 마무리’ 구상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2년 차 정해영이 마무리라는 부담 많은 역할을 맡아 4월을 보냈다. 아쉬움 속에서도 장현식의 발전은 큰 위안이 됐다. 선발 후보로 캠프를 보냈던 장현식이지만 그의 자리는 ‘필승조’다. 27일 경기 전까지 12경기에 나온 장현식은 13.1이닝을 소화했다. 모든 경기의 결과가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불펜 투수 중 가장 많은 경기와 이닝을 책임지면서 ‘마당쇠’로 위기의 마운드를 지탱해줬다. 장현식은 “정신없이 던지고 있다. 그동안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데 과정이 좋지 못했다. 부족한 게 많아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자는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정밀함을 더해 더 깔끔하게 이닝을 처리하는 게 장현식의 바람이다. 장현식은 “쓸데 없는 공을 줄이면 더 많이 던질 수 있고, 체력도

아낄 수 있어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며 제구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다. 불펜진의 난조 속 어깨가 더 무거웠지만, 장현식은 ‘하나’를 이야기한다. 그는 “불펜이 하나 돼 뭉치고 있다.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불펜에서 역할을 주문한 윌리엄스 감독은 장현식에게 ‘합격점’을 줬다. 윌리엄스 감독은 “장현식 본인이 필승조로 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8회 던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스프링캠프 때 선발로 준비하면서 변화구로 스트라이크 던지는 것에 익숙해졌다. 또 캠프 때 선발조를 준비하면서 어깨 보강훈련을 더 했다는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지금까지는 구속도 많이 올라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장현식의 달라진 2021시즌에 대해 평가했다. 장현식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불펜은 여전히 고민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역시 선발로 시즌을 준비하고, 선발로 첫 스타트를 끊었던 김현수도 불펜 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선발진에서는 27일 한화를 상대한 임기영과 함께 우완 남재현·이민우, 좌완 김유신의 대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초반 3경기에서 강렬하고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인 이의리는 정상 로테이션으로 투입된다. 28일 한화전 선발로 이의리를 예고한 윌리엄스 감독은 “준비하는 과정과 피칭에 익숙해지고 있어서 정상 로테이션으로 돌리기로 했다”며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몸상태가 좋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장현식